황정민 "밥은 펜보다 강하단 대사처럼 공감되는 작품"

황정민

오늘 첫방 '허쉬'서 12년차 기자역
시청률 25% 넘으면 출연진 단체 댄스
임윤아 "패기 넘치는 인턴 기자 역할"

기자 드라마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공식을 8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황정민이 깰 수 있을까.

JTBC는 11일 신문사를 배경으로 한 새 금토드라마 '허쉬'를 첫 방송 한다고 10일 밝혔다.

사건을 파헤쳐 정의를 구현한다는 묵직한 메시지보다는 기자가 직업인 월급쟁이들의 평범하면서도 소소한 이야기를 다뤄 공감을 얻겠다는 게 제작진의 기획 의도다. 제목 '허쉬'(hush)는 '쉿, 조용히 해' 또는 침묵, 고요를 뜻한다.

황정민이 연기할 국내 굴지의 언론사 매일한국의 12년 차 베테랑 기자 한준혁은 기자로서 능력은 물론 경력, 체력, 정신력, 친화력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지만, 과거 '그날'의 일 때문에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한량이 됐다.

황정민은 이날 열린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"대본을 1부부터 6부까지 단숨에 읽고 정말 재밌었다.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시청자들이 공감해 같이 웃고 울고 즐길 수 있는 대본이라는 생각에 바로 '하고 싶다'고 말씀드렸다"며 "특히 '밥은 펜보다 강하다'는 대사도 현실적이었다"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.

그는 "8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실감이 솔직히 잘 안 난다. 내일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오면 실감이 좀 나겠지만 지금은 마냥 떨리기만 한다"고 덧붙였다.

황정민은 한준혁에 대해 "대단히 나약한 인물인데 나약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아이러니한 면이 있다.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 매력적"이라며 "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음 깊이 가진 투철한 기자 정신이라는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"고 설명했다.

그는 이어 "과거 '모비딕'에서도 기자 역할을 한 번 했는데, 시(詩)처럼 한 단어 안에 함축해서 제목을 뽑는 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.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기사를 쓴다는 것도 어렵겠더라"고 덧붙였다.

황정민은 또 시청률이 25%를 넘으면 출연진 단체 댄스 등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.

임윤아는 매일한국의 인턴 이지수를 연기한다.

단발머리로 변신한 임윤아는 "황정민 선배님께서 출연하신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었다"고 웃으며 "지수는 패기 넘치고 당찬 매력이 있다. 하지만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고, 비밀과 사연이 있다"고 말했다.

그는 이어 "촬영 전 경찰서와 신문사에 가서 기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분위기도 보고 공부했다"고 덧붙였다.

임윤아는 또 "황정민 선배님은 카리스마 넘치시지만 또 굉장히 따뜻하고 편하고 친한 오빠처럼 위트도 있다"고 강조했다.

'허쉬' 극본은 '슈츠'를 쓴 김정민 작가가, 연출은 '혼술남녀', '식샤를 합시다', '막돼먹은 영애씨' 등을 만든 최규식 PD가 맡았다.

최 PD는 "무겁지 않고 유쾌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다. 매회 나오는 소제목과 관련된 감동적인 에피소드도 등장하는데, 그런 포인트들이 시청자들께 울림을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"고 말했다.

'허쉬'에는 손병호, 유선, 김원해, 박호산, 이승준, 경수진, 김재철, 정준원 등도 출연한다.

/연합뉴스

'부부의 세계' 2억2천만뷰…2020년 최고 드라마

'한 번 다녀왔습니다' '사랑의 불시착' '사이코지만 괜찮아'도 1억뷰

"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"라는 명대사(?)를 남기며 큰 인기를 누렸던 JTBC '부부의 세계'가 클립 영상 드라마 부문에서도 2020년 왕좌를 가져갔다.

10일 주요 방송사의 클립 VOD(주문형비디오)를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스마트미디어렙(SMR)의 분석 결과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방송했던 '부부의 세계' 클립 조회 수는 2억2000만회, 회별 평균 조회 수는 1400만회를 기록하며 올해 방송한 드라마 중 1위를 차지했다.

'부부의 세계'를 포함해 누적 조회 수 1억뷰를 넘긴 드라마는 총 네 편으로 KBS 2TV '한 번 다녀왔습니다'(3월 28일~9월 13일 방송)가 1억 8900만뷰, tvN '사랑의 불시착'이 1억 2천400만뷰, tvN '사이코지만 괜찮아'가 1억 1000만뷰를 기록했다.

이렇듯 올해도 JTBC와 tvN 등 비지상파가 드라마 부문 톱(TOP)10을 싹쓸이했다.

'부부의 세계'

지난해 'SKY 캐슬'로 순위권에 단 한 편을 올렸던 JTBC는 올해 '부부의 세계'와 '이태원 클라쓰'(5위·9800만뷰) 두 편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.

tvN은 외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'사랑의 불시착'과 '사이코지만 괜찮아' 외에도 '슬기로운 의사생활'(6위·9400만뷰), '하이바이 마마!'(8위·7000만뷰), '구미호뎐'(10위·6900만뷰) 등 총 5편을 순위권에 진입시켰다.

'사랑의 불시착'은 지난해 12월 14일 방송을 시작한 탓에, 올해 드라마 순위에서는 7회부터 마지막 회까지의 조회 수만을 집계했음에도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. 이 드라마의 1회부터 마지막 회의 누적 조회 수는 1억 9100만뷰로 2위인 '한 번 다녀왔습니다'를 넘어섰다.

지상파 중에서는 SBS의 '낭만닥터 김사부2'(8위·6900만뷰)와 '펜트하우스'(7위·8200만뷰)가 순위권에 진입했고, KBS는 '한 번 다녀왔습니다'로 체면치레를 했다. MBC는 10위권 내 단 한 편의 작품도 올리지 못했다.

올해 가장 많이 본 드라마 클립 영상 순위를 살펴보면 20위권 내 무려 11개 영상이 '부부의 세계'였다.

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는 '부부의 세계'에서 지선우(김희애 분)가 여다경(한소희)의 집에서 저녁 식사 도중 돌연 이태오(박해준)와 여다경의 불륜 관계를 폭로하는 장면으로 무려 440만뷰로 집계됐다.

/연합뉴스

연말 감성 보이스에 취해 볼까

백예린·이승기·태연·김성규
솔로 가수들 연이어 새 앨범

백예린

이승기

연말을 앞두고 화제성 높은 솔로 가수들이 연이어 새 앨범을 들고 돌아와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.

지난해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며 홀로서기 한 뒤 정규 1집으로 대중적 성공과 평단의 호평을 모두 잡은 백예린은 10일 두 번째 정규앨범 '텔어스바웃유어셀프'(tellusboutyourself)를 내놓는다. 정규 1집 '에브리 레터 아이 센트 유.'를 발매한 후 꼭 1년 만이다.

백예린은 정규 2집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변신을 예고했다. 딥하우스, 신스팝, 게러지 등의 장르를 아우르며 기존 백예린 음악에서 더욱 확장된 음악 세계를 선보인다고 레이블 블루바이닐은 전했다.

배우와 예능인으로 활약해온 이승기는 같은 날 정규 7집 '더 프로젝트'(THE PROJECT)를 발매하며 5년 만에 본업인 가수로 돌아온다.

윤종신, 용감한 형제, 넬 김종완, 에피톤 프로젝트 등 쟁쟁한 뮤지션들이 프로듀싱한 신곡 4곡과 리마스터링 5곡 등 총 9곡이 담긴다.

용감한 형제가 작사·작곡한 타이틀곡 '잘할게'는 이승기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. 이승기는 "중독성 있는 훅송이 곁들어진 이승기표 록발라드"라고 설명했다.

'믿듣탱'(믿고 듣는 태연)이라는 별명을 지닌 소녀시대 태연은 15일 네 번째 미니앨범 '왓 두 아이 콜 유'(What Do I Call You)로 자신만의 음악적 감성을 보여준다.

올해 1월 전역한 인피니트 김성규는 14일 세 번째 미니앨범 '인사이드 미'(INSIDE ME)를 발매한다. 김성규의 솔로 앨범은 지난 2018년 정규 1집 '10 스토리즈(Stories)'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이다.

/연합뉴스

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
창사 32년 (주)YHB ECO
www.yhbeco.co.kr

미스트크리너
절삭유 미스트/오일미스트 제거
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
99.8% 집진 효율

더스트크리너
먼지, 분진, 각종 더스트 제거
카트리지 / 백필터 적용

전기집진기
산업/요식업소
연기·기름·미세먼지 98% 제거
생활민원해결 !

호남지역 대리점 모집
무점포/무자본 판매하실 분

광주공장 영업부 :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-33(안청동) TEL : 062 - 953 - 2995 H·P : 010-2051-6401
서울영업본부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: 02 - 2029 - 6400 ~ 3